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 년 5 월 22 일 수요일

날씨 ☀️☁️

제목: 보람차고 자연과 친해진 학교원에 활동

오늘은 원예활동을 하는 날이다. 수업 시간과 선생님의 설명이 아주 길었다. 나는 그만큼이나 조그마한 식물에 정성과 노력, 환경, 자연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작고 작은 식물 하나하나에 자연과 환경, 노력, 정성만으로도 많은게 필요해다니!" 항상보는 많은 나무와 꽃, 잔디같은 식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을까? 풀 하나에도 들어있는 노력이 이렇게도 많은데 말이지. 그리고 많은 식물들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호야, 비단이끼, 당근꽃 등 많은 식물의 이름을 알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 화단에 있는 작은 식물이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날이면 자연과 환경에 가까워진 것 같아 뿌듯하긴 기분 좋다.

오늘의 자연 환경일기 끝~!



호접란이 내가 정성껏 돌봐줄게!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 년 5 월 25 일 토요일

날씨 맑음 ☺

제목: 강정보디아크 사람과자연, 강그리기대회 / 오늘

오늘은 강정보 디아크에서 그림그리기대회를 하려고 소풍을 갔다. 주제는 사람과자연, 강이었다. 나는 이 그림을 내어엄상을 하고싶다. 거나,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다그리고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그 그림에 내가 그린 '배변봉투 꼭 챙기' 라고 쓰인 팻말,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모습 등 자연과 환경이 내가 그린 그림 속에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알고 나니 내 머리속에 있는 지식과 환경, 자연이 더 똑똑. 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즐거웠다.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자 내 그림보다 커 눈에 더 띄고, 더 잘 그려서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 약간 실망하였는데 자연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또 강정보에 온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먹었는데 우리는 도시락을 싸와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참 보람찬 강정보 디아크 소풍이었다.

“강정보에 있는 금호강과 낙동강아고마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을 주어서 정말고마워!”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 년 5 월 26일 일요일

날씨 ~~맑아!~~ 더워~!

제목: 외할아버지 포도밭에서 생긴 환경사랑

오늘 외할아버지의 포도밭에 가서 많은 자연과 환경을 느꼈다. "시골이니 까더 많이 자연을 볼 수 있겠지!" 어떤 환경을 느꼈냐면 할아버지의 밭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파수신상추를 뜯어서 점심으로 먹었다. 그 상추야말로 지구와 사람,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강식품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전심법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필요한 가지는 따고 필요가 없는 가지들 '툭!' 잘랐다. 환경과 자연을 도와준 것 같아 뿌듯했다. 또 나는 호미를 이용해 돌이 있는 절벽에 심어져 있는 조그만 풀을 캐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옮겨 심어주었다. 물도 주었다. 쏘아아~! 나는 이처럼 자연과 함께 할 때 늘 기분이 좋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다.



상추야 속속 가라라~

자연이 좋아요~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 년 5 월 30일 목요일

날씨 ☀

제목: 내 손끝에서 실천한 환경보호, 분리수거

오늘은 내 손끝에서 실천한 환경보호를 했다. 그건 바로 '분리수거'! 오늘 분리수거를 했는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통에, 비닐은 비닐통에 넣었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땅에 묻어도 잘 썩지 않는다. 플라스틱과 비닐 말고도 쓰레기들은 썩는데 몇 백년씩 걸린다고 한다. 또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져 많은 동물들과 환경, 지구가 다치고 있다 한다. 게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앞으로 내 손끝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지구와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호해야겠다. 이계는 사탕의 비닐포장이나 배달음식의 포일도 그냥 제 나친다면 미래의 지구가 상상이 되어 불안할 것 같다. 과연 미래의 지구는 괜찮을까? 앞으로 쓰레기를 줄일려고 모두 노력하자!



○ ○
 캔아, 새로운
 자전거로 태
 어나자~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6월 3일 월요일

날씨 ☆

제목: 환경 퀴즈~

오늘 학교에서 3교시에 환경퀴즈를 하겠다 그런데 퀴즈를 풀기 전에 환경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잘 보아야 퀴즈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나온 중요한 말들을 종합장에 적었다. 다 지켜보니 환경에 대해 아주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생각이 들었다. 기쿠르튼튼 할 수 있게 실천하는 운동 제로 웨일링, 두꺼비가 바라는 날이나 새벽에 사는 곳을 옮기는 것 과과대포장은 물건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포장이라 는 것 등 어쨌든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환경 영상을 잘 보고, 메모하고, 환경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퀴즈를 많이 맞힐 수 있었다. 너무 너무 보람차고 뿌듯한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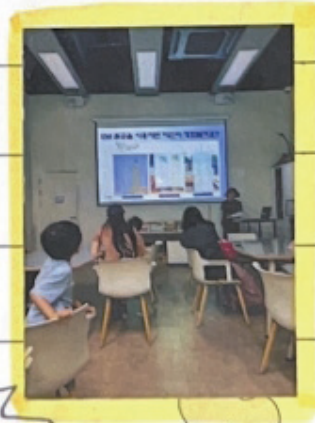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 년 6 월 6 일 목요일

날씨 상쾌함~

제목: 깨끗해져라! 흙공, 압!

오늘 달성습지에 가서 흙공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면 많이 더러운 강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흙공을 만드는 느낌은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드는 것 같다. 흙공에 재료는 EM호소이다. 그리고 향토도 있다. 호소 때문인지 식초 냄새가 났다. 으악! => (EM호소는 유익한 미생물로, 흙공을 만들 때 사용되는 '호소'이다.) 그 다음 흙공을 들고 강으로 가서 흙공을 던졌다. 풍덩! 내 손으로 직접 강물을 정화시키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니 뿌듯했다. 돌아와서 우리는 펌프와 우물에 손을 씻었다. 그때 물의 소중함도 알 수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부레옥잠도 구경할 수 있었다. 아주 보람차고, 신나고, 뿌듯하고, 신기했던 공휴일이다. 끝~!



EM 흙공을 사용하면
하천이 깨끗이 정화되지 않을까?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6월 6일 목요일

날씨 화창~



수질정화 식물
부레옥잠 관찰중
~



자잔~! 우리가
만든 흙공이에요!

비어사초냄새가
나요!



흙공을 강물로
'퐁퐁!' 던져요.



공팡이가 있고,
EM효소와항토로
만들었어요.



우아 강이다!
흙공으로 깨끗하게해줄게



펄펄다!
여사랑들은
이런 펄펄과우물로
물줄더어올나?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6월 8일 토요일

날씨 ☀️ 약간 비움 ☁️

제목: 대구 녹색하수원에서의 하루!

오늘은 대구 녹색하수원으로 놀러 갔다. 정말로 재미있고, 환경에 관심이 많아졌었다. 먼저 커피콩으로 키딩 만들기를 했다. 커피콩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모양의 키딩이 있었는데 물을 받아서 색칠했다. 나는 장갑모양으로 만들었다. 또 부채도 만들었다. 색연필로 부채를 꾸미고 꽃을 플로 붙였다. 2층으로 올라가 구경하기 시작했다. 친환경마크 찾기 프로그램도 있고, 커다란 버스도 있었다. 버스에서 가게은 거리는 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영상이 나오았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친환경마크가 있는 것을 골라야겠다. 그리고 큰 나무에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쪽지를 써 붙였다. 자전거로 달려 불을 밝히는 프로그램도 했다. 오늘 녹색하수원에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참 뿌듯한 하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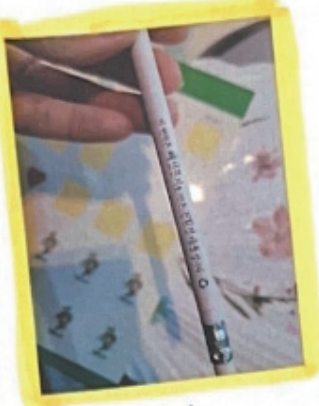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6월 8일 토요일

날씨 ☀️약간 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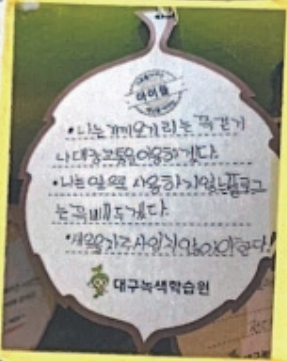


페션문기로 만든 친환경 연필



자전거를 타서 에너지를 아끼자!

환경에 대한 나의 약속!
나의 다짐! ~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렇게!

이런 걸 사용했을 때는 지구가 깨끗해질까?
어떻게 할까?

바로 이거!



친환경 제품인가?



지금도 쓰는 건가?

아게 바로 나의 약속!
나의 다짐!

후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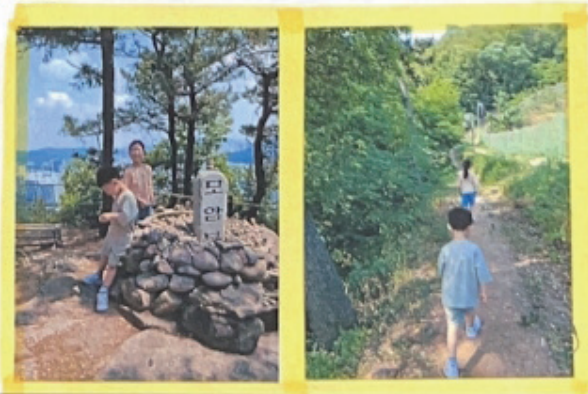
2024 년 6 월 15일 토요일

날씨 맑음

제목: 소비하지 않은 하루

오늘은 소비 없이 재미있게 놀았다. 오늘은 등산을 갔는데 주스 대신 집에서 계속 활용 할수 있는 텀블러에 물을 담아갔다. (만약 주스를 구매하면 라벨이 없는 음료를 사는 것이 좋다) 소비하지 않는 것도 자연환경을 소중히 생각 하는 것이다. 만약 소비를 해 과자를 산다면 우리가 과자를 다 먹으면 비닐봉지나, 상자등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말에는 소비를 해 키즈카페, 이월드 등 에 가서 노는 것 보다 지구를 튼튼하게 해 주는 플로깅운동실천이나, 우리가족처럼 등산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오늘은 소비도하지않고, 등산을 해 몸도 튼튼해져 기분이 참 좋았다.

지구도 튼튼
내몸도 튼튼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날씨 구름에 살짝 가려진

제목: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날, 바이 나딩 데이
어제 소비하지 않고 지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있
는지 검색해 보았더니 진짜로 '바이 나딩 데이'라고
나왔다. 이 날이 있다고 나왔다.

바이 나딩 데이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로 1992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무분별한 소비를 반성하고
생산과 폐기로 부터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날이다.

나의 다짐

- 나는 앞으로 11월 26일인 바이 나딩 데이를 기억하고 소비를 많
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
- 필요없는 물건을 필요한 물건과 바꾸어서 소비를 줄이겠다.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날씨 무척 더워 ☀️ 너무더워

제목: 모구모구 분리수거 실천

오늘 모구모구용료를 매시고 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버렸다. 페티병은 플라스틱에, 라벨은 비닐쓰레기에 버렸다.

직접 실천하니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여기서 잠깐!! 왜 페티병 라벨을 분리하여 버릴까? 한

경오염이 주범인 비닐과 플라스틱이 재활용으로 잘 활용될수있는 방안이라서! 우리나라는 20년

129일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티병 분리 배출 의무화 하였다.



<올바른 배출 방법> 😊

- ① 라벨 ^{용수} 제거
- ② 내용물이 묻어나지 않도록 세척
- ③ 페티병은 자라리트라고뜨개담
- ④ 알맞게 분리수거. (플라스틱이 비닐)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날씨 덥고 비움 짝짝함

제목: 땅속 작은 괴물 지렁이

오늘은 외할아버지 댁에서 감자를 캐다가 지렁이를 발견했다. 으악! 징그러웠지만 환경에 이로운 동물인 걸 알고 있었다. 집에 지렁이에 대한 책이 있어서 집에 오자마자 읽어 보았다.

그럼 왜 지렁이는 환경에 이로운 걸까?



① 흙을 느긋하게 해 줍니다. 지렁이들이 지나다니며

흙 사이 사이에 터널이 생겨서 흙이 부드러워져요.

② 지렁이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어치우는

대단한 먹보예요.

③ 지렁이 똥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지렁이! 몰라봐서 미안해!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 년 7월 4일 목요일

날씨 더운☀

제목: 제로 웨이스트 카페서 음료수~

오늘 엄마와 강을 보러 갔다가 제로웨이스트 카페에 우연히 가게 되었다. 엄마한테는 항상 텀블러가 있어서 500원 할인도 받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제로 웨이스트'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zero-waste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5R운동

Refuse 불필요한 일회용품 거절하기	Reduce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Reuse 다시 사용하기
Recycle 재활용하기	Rot 자연분해되게 하기	

카페에서 EM을보게 되어 훌륭한 만든 것이 생각이나 반가웠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니 참 뿌듯한 하루였다.



텀블러
지참하세요



< 각종 리사이클링
생활용품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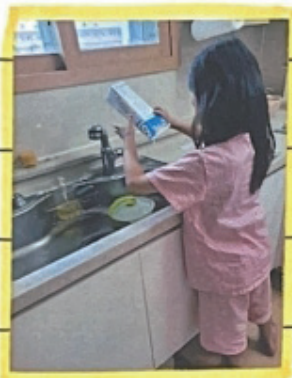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7월 5일 금요일 날씨 ☆

제목: 작은 우유팩부터 분리수거하자!

오늘은 내가 우유팩을 재활용할수있도록 분리수거 해서 버렸다. 이일이 일어난 아침에는 엄마가 다 마신 우유팩을 버리려 할 때, 바로 그때! 내 눈이 반짝 빛났다. 환경일기도 생각이 나고, 내가 배운 분리수거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 ①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서 말리기
- ② 갈라서 카운카운 겹쳐 부피 줄이기
- ③ 우유팩 모이는 곳에 따로 배출, 혹은 주민센터로 갖다주기

잠깐! 우유팩은 종이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다량배출이 어려운 지역은 손수필드가 일련해서 재활용 가차가 매우 높다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날씨 ☁ 비움 (강마)

제목: 머리 감기전 바질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머리 감는 날! 그런데 엄마가 머리 감기 전에 바질을 하라고 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머리가 부드러워져 샴푸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환경 보호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 날감씩 놀랐다.

잠깐 왜 샴푸를 줄여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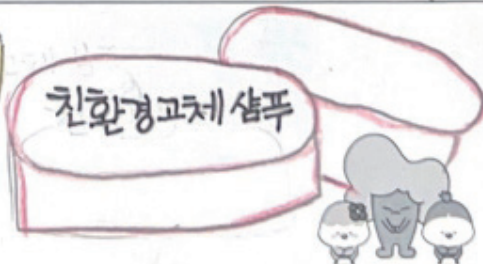
- ① 물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없애고
- ②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 된
- ③ 또한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바로 "흡성 계면 활성제" 때문!

엄마는 친환경 고체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셨다. 오늘도 생활 속의 작은 실천 하나를 배웠다.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 없어요! 사용 기간이 길어 경제적이예요!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 년 7 월 18 일 목요일

날씨 비움 (강마침)

제목: 휴대폰을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오늘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애통이부딪혔다. 콧자국! 그런데

분리수거해서 유유팩을 버리는 것처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이 있을까? 검색해 보았다. 검색해 보니 3가지

방법이 있었다. 피



우리 집 밑에 마침 소형 폐가전수거함이 있어서

버렸다. 폐휴대폰을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면

휴대폰에 있는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호안경오염

을 야기 할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가 기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재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재활용이 이렇게 쉽다!

깨진 휴대폰이 어떻게 재활용될까?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8월 9일 토요일

날씨 더울

처치곤란 수입공병 양양서 작품 재탄생

시 작문 | 중 임재 2024.08.09 | 김 지현 | 배 영우

그동안 버려지던 수입 와인병과 맥주병 등을 생활소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는 양양 생활용센터가 환경을 생각하는 색다른 체험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핑 등 새로운 해변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은 양양지역의 경우 MZ세대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 병맥주 소비가 급증. 연간 20만 개 이상의 빈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 맥주병은 원재료 특성상 다른 쓰레기에 비해 처리비용이 높아 수거업체에서 회수를 기피하고 있어 일상적인 수거시스템으로는 소화가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들과 함께 수입주류 빈병을 재활용하는 체험프로그램과 환경교육, 환경보호 캠페인 등 자원순환 사업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이 버려진 와인병 등을 생활용센터로 가져오면 병 하나당 150원씩 적립해주고 라벨 제거, 세척, 컷팅, 절단면 연마, 초음파 소독 등을 거쳐 체험객들이 허브볼, 풍경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된다.

생활용센터의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의해 그동안 버려졌던 와인병과 맥주병이 화분, 향초 병, 컵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작품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윤경 생활용센터 팀장은 "최근들어 한달에 100여 명 이상이 방문해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며 "체험 전에 환경교육을 병행하고, 직접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최훈

(24. 8. 9 강원도민일보)

요약 강원도 양양에는 커리가 어려운 수입 주류 빈병을 생활용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환경교육,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 할 수 있다.

나기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넘치는 게 유리공병인데 업사이클링으로 더욱 가치있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유리병 자체가 예뻐서 꾸미는 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다.
또, 학교 미술시간에도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수업도 하고 업사이클링도 하니 1석 2조 아닐까?

나의 업사이클링 작품~



업사이클링이란?
리사이클링+업그레이드
보다 가치있는 물건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날씨 더움

건협 서울동부지부,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플로깅 실시

건협 임직원 및 메디테크어머니봉사단-구립마장어린이집-지역주민 등 100여명 참여

간여름 기자 arko@616bukumnews.com/2024.08.23 17:21:39

☐ ☐ 4 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22일 청계천 생태학교 앞 둘다리 2개소에서 지역 하천 수질 개선 및 환경정화를 위한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및 플로깅을 실시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어 하천유역 산업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녹조현상 및 오염원 도실미생물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동부지부 임직원, 메디테크어머니봉사단, 구립마장어린이집 어린이 및 임직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계천 생태학교 앞 둘다리에서 모여 총 1000개의 EM 흙공을 던지고, 하천 주변의 플로깅을 실시했다.

건협 서울동부지부 이미희 본부장은 "인근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 및 지역주민과 함께 좋은 취지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메디테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외에도 제로 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부 8.23 호경뉴스)

EM이란?

유용 미생물이란 뜻으로 호모균, 유산균, 누룩균 등으로 구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



우리 동네에 EM 받는곳, (행정복지센터)

이 기사를 보니 우리 가족이 다들습지에서 했던 EM 흙공 만들어 던지기
기가 생각 났다. 여름철에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물은 흐
르고 흘러 만나게 되니 대한민국 곳곳에서 EM 흙공으로 정화활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강물이 더욱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EM 용액이 섞인 물로 호수에 물주기!
미생물 작용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라!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날씨 더움

제목: 찾았다! 친환경인증마크

지난 번 환경의 날 주간에 기보았을 때는 여겨보았던 게 있다 바로 친환경 인증마크! 그 때는 친환경 인증마크가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참 쉽게 잘 보이는 것 같다. 오늘도 엄마와 마트에 가서 친환경마크가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 했다. 아는 만큼 보이기 쉬워 보이고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만 해도 환경보호에 또 작은 실천 하나를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물건을 살 때는
친환경마크를
꼭 확인하기



대구는 녹색학교를 위해
눈여겨 보았던 친환경
대구녹색학습원에서
눈여겨 보았던
친환경 마크





이서현 초등학교 3학년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날씨 더움

제목: 플로깅한 날

오늘은 환경일기를 쓰면서 미음연만 생각해있던 플로깅을 실천해본 날이다. 직접 플로깅을 하기 전까지는 환경운동가나 근로하시는 분들이하는 줄만 알았는데, 누구나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운 날씨에 플로깅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기분만큼은 참 좋았다. 그런데,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쓰레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땅에 쓰레기가 많았다니...

조금 충격을 느끼기도 한 날이다.

운동도 되고, 환경보호도 하니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수 있는 플로깅을 앞으로도 더 실천해보아야겠다.

플로깅이란?

플로깅은 스웨덴어 플로카엄, '줍다'의 뜻과 영어 조깅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을 뜻한다.

